



## 간추린 청렴 소식

### [1] 대검, '2021년 자체청렴도 실적' 취합



대검 청렴팀은 검찰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청렴도 측정'을 위하여, 전국 청의 '21년도 하반기 자체청렴도 추진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각 청 담당자와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2] 밀양지청, '업무관련자 간담회' 실시

반기별 '기록열람등사 업무관련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민원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해주어 감사하고, 담당자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 [3] 울산지검, '청렴 가로세로퀴즈' 실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검사장이 직접 만든 '청렴 가로세로 퀴즈'를 전 직원이 풀어보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의 80%가 참여하는 등 청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4] 청주지검, '청렴 사연 공모전' 개최

직원들이 직접 경험했던 소소한 청렴 사연\*을 공모하여 우수작품 선정 후 시상하고, 직원들과의 공유를 통하여 청렴의식을 제고 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답례나내·외부 정보 제공 요청, 기타 청탁 제의를 거절한 사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한 사례 등



## 임인년 새해 검찰총장 신년사

2022. 1. 1.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검찰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인한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하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I. 국민중심의 업무 수행
- II. 6대 중요범죄 수사 등 범죄대응 역량 강화
- III. 인권보호, 사법통제 철저히 수행
- IV.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 V.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 수행

## 생각해보기, 청렴 명언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미국 NBA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 한국에서는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목표를 한번에 이루는 건 어렵습니다.

청렴 교육 한 걸음, 청렴 실천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청렴한 검찰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청렴 한걸음이 보태어져 더욱 더 청렴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에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목표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청렴 상식이 쑥쑥!

##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

조선 영조 때 호조 서리를 지낸 김수평은 청렴결백하여 관리뿐 아니라 도성 백성들에게도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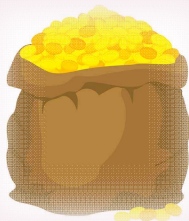
그의 강직한 행동은 어머니의 반듯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김수평과 홀어머니가 사는 집은 초라하고 낡은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도 가난한 형편에 돈을 들일 수가 없어 김수평의 어머니는 흔들리는 대들보와 서까래를 직접 고쳐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김수평의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의 기둥을 고치던 중, 기둥 밑에서 **돈이 가득 든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거금을 본 김수평의 어머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기아와, 비단옷,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주경야독하며 고생하는 아들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수평 어머니는 돈 항아리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이후 김수평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돈 항아리에 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가졌으면 몸은 편히 살았을지는 몰라도 요행으로 얻은 돈으로 얻은 편안에 무슨 복락이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내 자식이 요행이나 바라고 기뻐하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웠다. 그런 염치없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기에 오늘 같은 날이 온 것 같구나."

어머니의 뜻에 마음 깊이 감동한 김수평은 이후 청렴하고 충직한 관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청백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 앞에 돈이 가득 든 항아리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당한 이득은 지금 당장의 물질적인 만족은 채워줄 수 있으나,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최고의 덕목임을 항상 명심하여 부당한 이득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일화 출처 따뜻한하루 홈페이지(www.onday.or.kr) - 따뜻한 감성편지 中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남극의 황제펭귄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프리허그    ② 코너링    ③ 허들링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1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2. 1. 20.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2월 정답은 **① 클린콜**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추첨 당첨

한OO(대검), 고OO(서울중앙), 김OO(서울동부), 양OO(서울북부), 강OO(광주), 박OO(대구서부), 윤OO(의정부), 현OO(고양), 한OO(강릉), 권OO(외부)

##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을 대할 때 짜증 섞인 말투로 시작을 하다보니 매우 불쾌했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대직자가 지정되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업무로 힘들 순 있지만, 검찰청에 처음 방문한 민원인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로 응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의 일처럼 해주셨고, 설명과 안내도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직원의 친절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